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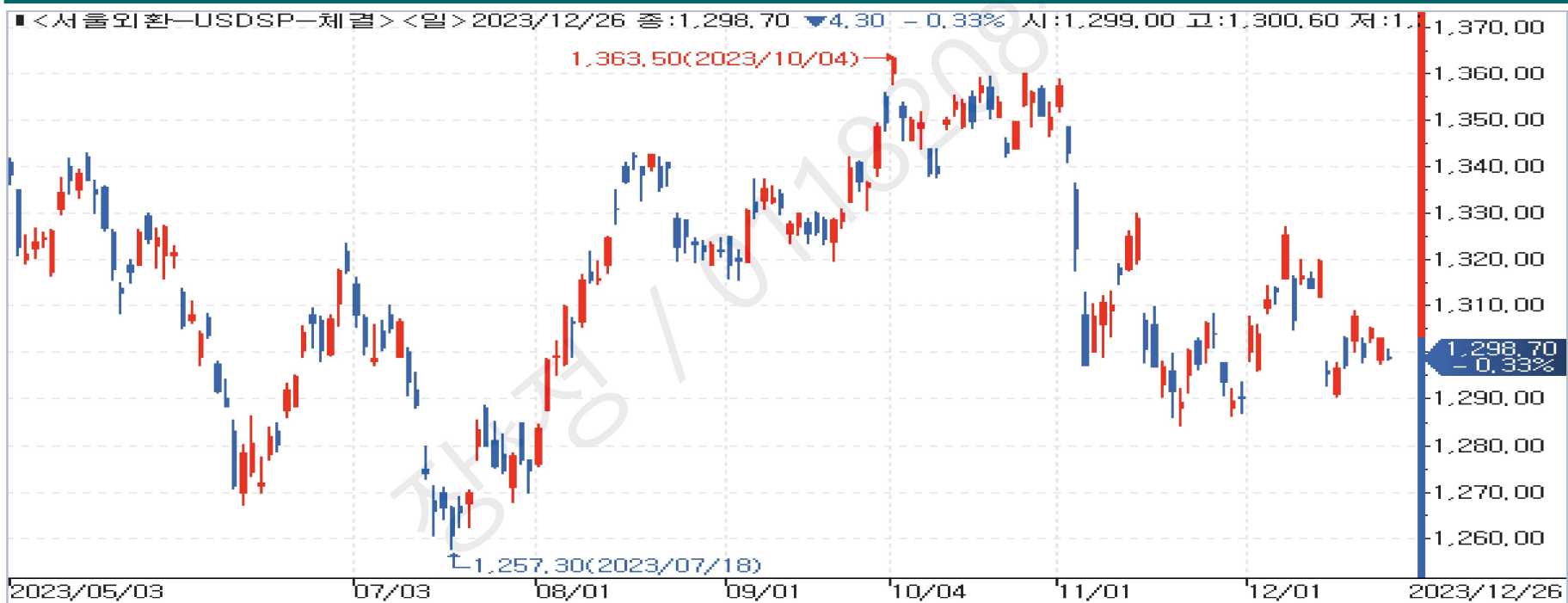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3. 12. 26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12/18~12/22)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지역 연은 총재의 시장 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에 대한 경계성 발언으로 달러의 추가 약세 제한되며 환율은 소폭 상승 출발. 이어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결정에 따른 엔화 약세와 수급상 수입업체 결제수요 유입 등 매수 우위 보인 측면 반영하며 상승 흐름 지속
- 중반,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전망 속 위험선호 심리 유입된 가운데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영향 등에 하락 전환
- 후반, 영국 물가지표 둔화로 BOE 금리인하 기대감 높아진 측면이 달러 지지하는 가운데 뉴욕증시 부진에 따른 리스크오프 분위기 속 환율은 상승 전환. 이어 주 후반, 시장 컨센서스 하회한 미국 3분기 GDP 확인 후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환율은 재차 하락 후 주초 대비 보합 마감

달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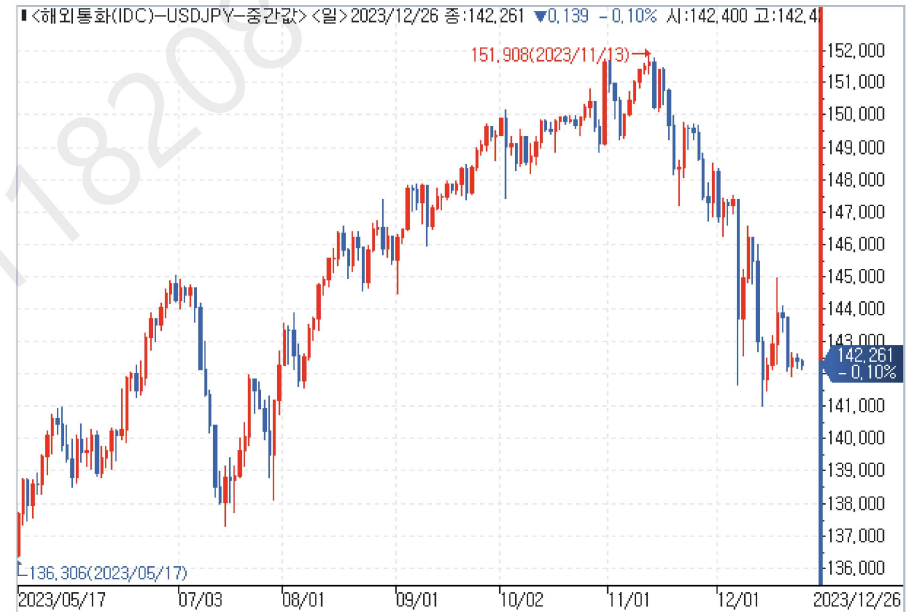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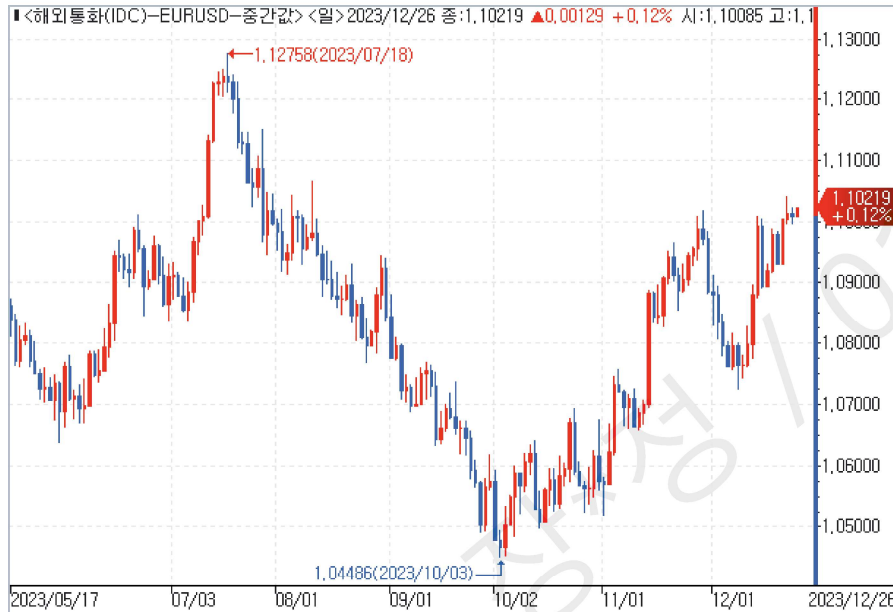
- 미국 11월 PCE 물가지표가 연속 둔화하며 연준 목표치 2%에 보다 근접함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 강화 등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이미 시장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을 내년 3월경으로 전망하며 가격에 반영시키고 있는 형국
- 또한 상기 영향 등이 고려된 기대인플레이션의 낮아지는 추세도 환율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급격한 환율 하락 시점의 결제수요 유입 등이 하단 지지 요인으로 판단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03.0	1,309.0	1,296.4	1,303.0	-

예상거래범위

1,290원 ~ 1,310원

엔·유로화 동향 (12/18~12/22)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위원들이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는 발언 이어가는 가운데 연준의 조기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 높아진 측면과 대조되면서 유로화 강세 출발. 이어 유로존 11월 CPI 둔화에도 ECB의 긴축 기조 지속 의지가 상대적인 유로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강세 지속
- 중반, 독일 11월 PPI가 전월비 -0.5%를 기록하며 예상치 보다 크게 둔화된 모습 확인되자 ECB의 금리인하 가능성 부각되며 약세로 전환
- 후반,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달러 약세 나타난 영향으로 유로화는 재차 강세. 이어 주 후반,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미국 헤드라인 PCE의 2%대 진입으로 달러 약세 흐름 심화됨에 따라 강세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95	1.1040	1.0892	1.1013	+0.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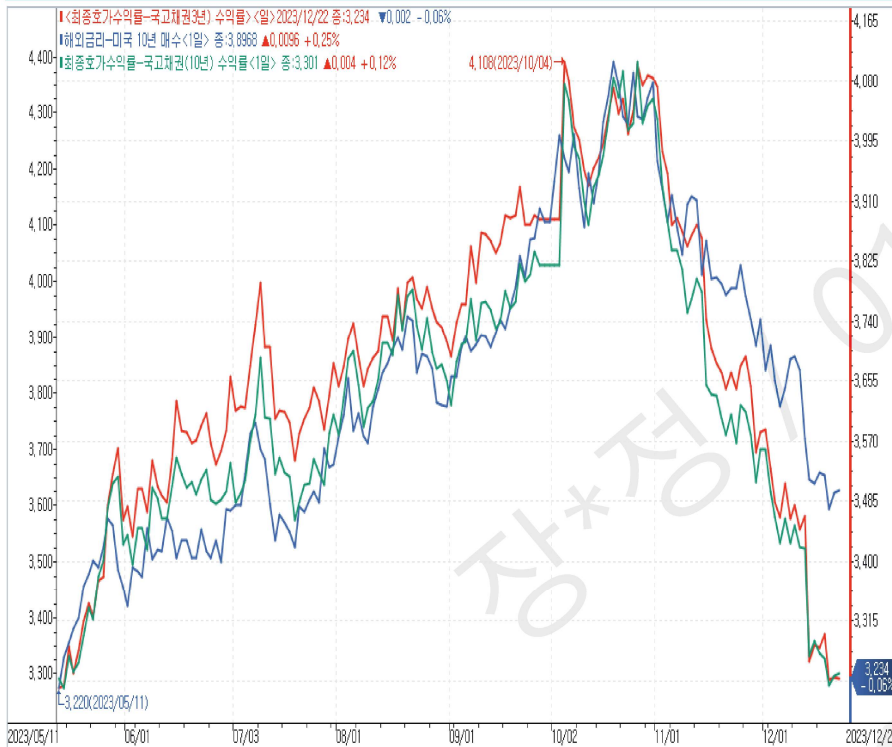
엔화 동향

- 주초, 12월 BOJ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현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 출발. 이어 시장 예상에 부합한 BOJ의 정책 유지 결정으로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약세 흐름 지속
- 중반, 그럼에도 BOJ가 물가 안정 시 내년 초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재차 확산되며 엔화 강세로 전환
- 주 후반, 일본 정부의 GDP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치 상향 조정 소식 '24년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에 무게 실리며 엔화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에도 일본 11월 CPI 상승률이 전월 대비 하락하며 물가 불확실성 지속된 영향으로 약세 전환 후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2	144.9	141.9	142.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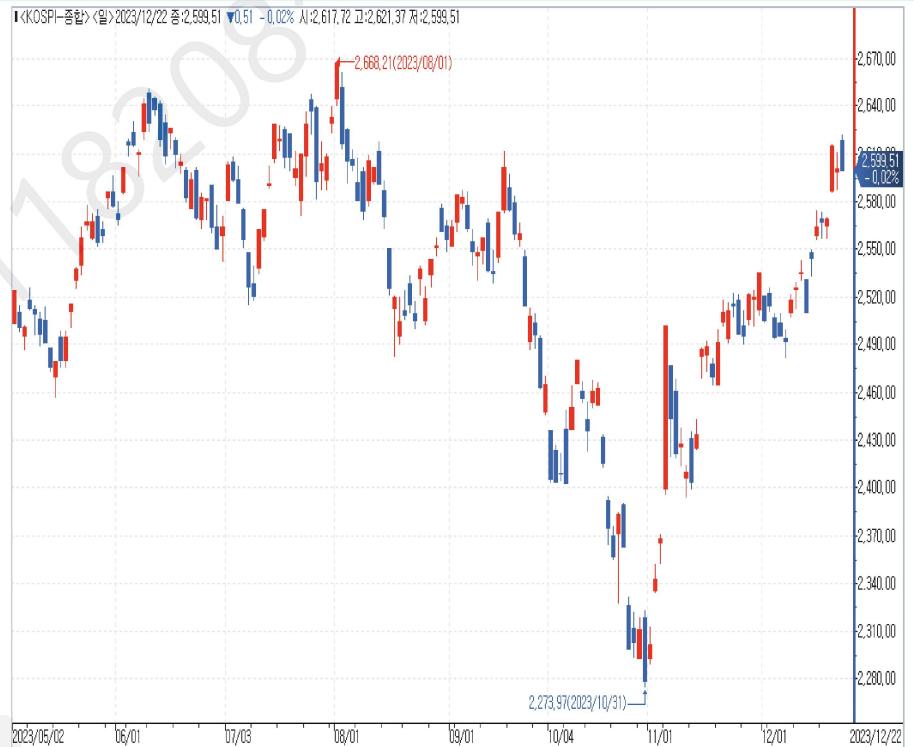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2/18~12/22)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12월 FOMC의 비둘기적 발언 진화를 위한 연은 인사들의 매파적언급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이어 시장의 관심이었던 BOJ의 정책 결정이 기존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시사 등으로 큰 이슈가 되지 못한 가운데 이전 연준 결정에 대한 영향 반영 등으로 장기간 하락 추세가 다소 강화된 양상 시현
- 중반 들어, 한은 물가설명회에서 총재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 이어질 것이란 언급 등을 반영한 가운데 글로벌 채권시장 강제 흐름에 연동되며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들어, 미국 주택 및 소비심리 지표 큰 폭 개선 등을 반영하며 상승한 미국 채금리 상승에 연동 흐름 보인 후, 주 후반 연말이 다가옴에 따른 얇은 장세 속에 미국채 금리에 전반적으로 연동 움직임 보인 가운데 보험권 혼조세로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전주 FOMC의 도비시 결과 이후, 뉴욕 연준 총재의 금리 인하 논의가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 등에 따라 코스피는 뉴욕 증시 하락 등을 반영하며 하락 출발. 이어 미 증시의 fomc 이후 단기 과열 논란 부각에도 국내 증시의 과열 논의는 시기 상조라는 인식 속에 증시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연준의 엇갈린 시그널 속에 달러의 제한적 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 속 반도체 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세 지속
- 후반 들어, 대주주 양도세 50억 상향에도 전일 뉴욕증시 급락 여파에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11월 미 PCE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개인, 외국인 매도 강화 등으로 하락 지속하며 마감